

# “부산지역 분리발주 확대 및 일감 확보에 최선”



지난 3월과 4월 전국 시·도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회는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제8대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도회를 이끌어 나갈 시·도회장을 인터뷰하여 사업계획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김재업 부산광역시회 회장을 만나보았다. | 편집자주

## 1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되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산지역 설비건설업계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만성적인 일감부족으로 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어 우리 업계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회는 하도급을 주로 하는 회원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하도급 불공정 관련제도를 주요 건설정책들과 연계하여 개선할 것이며, 우리 부산시회의 건의로 시작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더욱 확대시켜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염원이자 업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시의회 등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와 회원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설비건설업 발전에 초석을 다짐으로써 명실상부한 건설단체의 모범이 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의 임기동안 열심히 뛰고 찾아가는 협회를 만들어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2 중점 추진 사업

**첫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보낼 것입니다.**

설비건설업계의 염원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이 다섯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시간 부족 및 파행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을 접촉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이익증대를 위하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건설본부, 교육청, 교통공사 등 대부분의 부산지역 관공서가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기타 국영기업, 국립대학 등 민간공사도 분리발주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업체의 일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회의 건의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일감이 외지업체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역업체의 하도급참여 비율을 더욱 확대시켜 회원사의 실질 성장에 진력하겠습니다.

**넷째, 설비업계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설비건설업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비설계협의회, 그린기술사회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영환경개선 및 각종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사간 유대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감부족으로 인해 수주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간의 친목도모,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업계의 위상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 업계 현안 및 정책 관련 한 말씀**

정부는 예산절감과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품질을 보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폐지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건설경기가 호전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만이라도 시행을 유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공사실명제와 책임시공을 위해 1996년 12월에 시공참여자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다단계 하도급 등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건설노조의 일방적인 반발로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개인별 작업능력 차이가 바로 도급성가로 나타나 정확한 대가가 지급되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는 달리 일부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원가 보존을 위해 십장과의 이면계약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함에 따라 선의의 전문건설업체마저 범법자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공참여자제도는 재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20%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재하도급을 할 때 원도급자의 서면승낙과 발주자의 서면승낙 후 재하도급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특수자재의 설치 등 공사의 특성상 2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편법으로 계약체결하고 있으므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자의 서면승낙은 필요하나 발주자의 서면승낙까지 취득해야 되는 것은 중복규제로 행정 낭비 요인이 됩니다. 기존 재하도급 허용 비율을 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30%이상 확대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서면승낙이 있을 경우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계약 사항 통보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계기술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기능계 건설기술자(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등)의 경우 관리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능계 건설

기술자 경력확인 등의 관리기관 부재로 기술자의 현장배치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취업, 위장취업, 기술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능계 건설기술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인력 관리업무를 관련 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4 부산지역 회원사에게 당부 말씀

수주물량 감소와 과다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시점에 제8대 부산광역시회 회장에 선출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형 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과 원가절감의 방안을 연구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임기동안 회원사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비공사 분리발주 등 원도급 시장을 계속 확대해서 채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하시는데 걸림들을 하나하나 해소하겠습니다. 신기술·신공법 설비기술세미나를 현장 실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회원사 임·직원의 기술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대표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분리발주 현장에 참여 업체들의 부주의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의적인 측면에서 성실시공, 책임시공으로 분리발주가 잘된 정책이라고 감독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약력

### 부산광역시회 김재업 회장은?

- 1952년 8월 25일 출생
- 부산공업전문대학교 전기과 졸업
-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사 역임
-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회장 역임
- 現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의원
- 現 새마을운동 부산강서구지회 회장
- 부산대학교 표창
- 부산광역시장 표창
- 부산지방국세청 표창

